

李仁老의 現實觀과 文學思想

金 鎮 英*

一. 序 言

李仁老是 既往에 그가 「竹林高會」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 바 있고, 또 同時代 新興士大夫의 전형적 인물로 말해지는 李奎報와의 對立的 關係의 面으로 파악되어옴이 通例였다.¹⁾ 그리하여 現實觀에서는 消極性 乃至 도피적 태도를 보인 인물로, 그리고 詩學의 面에서는 用事論을 편 詩論家로 규정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는 立論은 별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李仁老是 도피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나간 인물이었는가? 또 麗朝 詩學의 根幹을, 李奎報의 新意論과 李仁老의 用事論의 對立을 거쳐 그 변증적 통합과정으로 보아 李仁老를 用事論者라고 못박아 두는 論述이 과연 온당한가? 또한 그것은 舊貴族層과 新興士大夫層間的 의식구조의 기본적 차이에서 결과된 것이라는 歷史主義的 해석이

* 博士課程(國文學 專攻, 서울女大 專職)

1) 李仁老의 生涯와 文學에 關連되는 主要 論著.

趙鍾業, 高麗詩論研究(충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63).

李東默, 高麗竹林高會研究(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68).

徐首生, 高麗朝漢文學研究(형설출판사, 1971).

전형대, 麗朝詩學研究(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4).

金聖基, 高麗漢詩研究(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8).

李炳漢, 「韓國古典詩論의 展開」(서울文理大學報 25호, 1970).

崔信浩, 「高麗詩話에 나타난 修辭에 對하여」(서울대 교양학부 논문집 2집, 1970).

崔信浩, 「初期詩話에 나타난 用事理論의 樣相」(古典文學研究 1집, 고전문학연구회, 1971).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驗(지식산업사, 1978).

내려지기도 했는데 그도 과연 합당한 논리일 것인가?

이에 本稿에서는 그의 生平과 進退 및 그의 進退와 作品을 통해서 皮相의 판단을 넘어서는, 보다 事實에 即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二. 李仁老의 現實觀

I. 生平 略誌

李仁老의 家門은 고려조 前期의 赫赫한 閥族 名門이었다. 그가 태어난 것은 18代 毅宗 六年(1152) 이었는데 바로 이 의종조에 발생한 武臣亂 以前까지만해도 慶源李氏는 「麗朝 前期의 三大家門」²⁾의 하나로, 累代에 걸친 國婚으로 王家의 外戚으로서의 不動의 門閥을 형성해 왔다. 李仁老 자신이 그의 家門을 자랑하기를,

「나의 선조는 문장으로 세세에 이어와 紅紙 전해온 것이 지금 이미 8장이다. (僕先祖 世世文章相繼 紅紙相傳今已八葉矣)」³⁾

라고 하여 文臣貴族으로서의 성세를 말한 바 있고, 역시 名家의 후예인 崔滋도 慶源李氏의 當당한 門閥의 형세에 대해 言及하기를,

「慶源李氏는 개국 때부터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내오다가 昌和公子淵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顯는 慶源白이 되었고 通·顯·顯 세 아들도 모두 재상이 되었으며 딸 한 사람이 바로 仁睿太后였고 나머지 두 딸도 宮主가 되었다. 子淵의 아우인 僕射 伯술의 子祥에게는 두 아들 預·顯가 있어 모두 재상이 되었고 그 자손이 모두 宗室과 혼인하여 존귀한 외척으로서의 성세가 古今을 통해서도 비할 바 거의 없다(慶源李氏自國初世爲大官 至昌和公子淵 有子曰顯 爲慶源白 通顯顯三子皆爲宰相 一女是仁睿太后 兩女俱爲宮主 弟僕射子祥 有二子曰預 曰顯爲宰相 其孫皆婚宗室 貴戚之盛今古罕比)」⁴⁾

2) 金庠基, 高麗時代史(東國文化社, 1961)에서는, 海州의 崔冲家, 慶源의 李子淵·子祥家, 慶州의 金富侑·富賦家를 고려전기 三大文閣家라 하였다.

3) 李仁老, 破閑集下(亞細亞文化社, 1972, p.38).

4) 崔滋, 補閑集上(亞細亞文化社, 1972, p.64).

라고 하였다.

李仁老是 바로 子祥의 후손인데, 子祥의 둘째 아들로써 平章事를 지낸 顯가 그의 曾祖가 된다. 다만 그의 父·祖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을 볼 수 없다. 그러나 李仁老是 이렇게 名家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그 자신은 일찍 父母를 여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가 되었는데 다행히 明宗의 叔父인 華嚴僧統 寥一이 養育하고 공부를 시켜 三墳五典(儒教典籍)과 諸子百家를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聰悟한 天分을 보여 8,9세 때에는 벌써 詩才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毅宗 24年(1170) 그의 나이 19세 때 鄭仲夫가 武臣亂을 일으켜 「文冠을 쓴 자는 胥吏라도 죽여서 씨를 남기지 말라.」⁵⁾고 하며 극단적으로 횡행함에 그는 피신하여 佛門으로 들어갔다가 還俗하여 25세 때엔 太學에 들어가 考藝에 連捷했고, 明宗 10年(1180) 그의 나이 29세 때에는 드디어 進士科에 장원급제함으로써 명성이 士林에 떨쳤다. 31세 때(1182) 崔永濡의 金나라 賀正使行에 書狀官으로 隨行하였다가 다음 해에 還國해서는 桂陽(今 富川)郡 書記로 나간 것이 그의 첫 宦路였다. 그 뒤 얼마 안가서 當時 宰相의 列에 있던 文克謙의 薦거로 翰林院에 補職되어 詞疏를 담당하였다. 翰林院에 入補된 이후 誥院에 이르기까지 14年間 在職한 동안에는 그는 詔勅을 짓는 여가마다 詩詞를 짓되 막힘이 없었으므로 '腹藁'의 稱을 들었다. 이때로부터 林椿 吳世才 등과는 자주 어울려 詩酒로 相娛하니 세칭 「竹林高會」를 이루었다.

崔忠獻 執政下의 神宗 年間에는 誥院에서 禮部員外郎으로 遷職하였고 그 뒤 神宗 7年(1204) 그의 나이 53세 때에는 孟城(今 孟山) 원으로 나가 있기도 하였다.⁶⁾ 한편 그는 神宗 2年(1199), 熙宗 3年(1207), 康宗 2年(1213) 등에 누차 최충현의 집에 초대되어 當代의 文士 李奎報 등과 더불어 詩文을 짓기도 하였다. 또 崔謙 형제 중심의 「耆老會」에 참석하

5) 高麗史 128, 列傳 41, 鄭仲夫.

6) 破閑集中 p. 29.

여 詩文을 지어서 文名을 드날렸다.

高宗初에는 秘書監右諫議大夫에 올랐다. 아들 世黃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文章의 성세를 自負하면서도 提衡(科擧의 試官)이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다가 左諫議大夫에 올라 試官의 命을 받았으나 試席을 열 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歷任한 最後의 관직은 左諫議大夫였고 이 관직에 재임하던 중 高宗 7年(1220) 享年 69세로 開京 紀桃井第에서 작고하였다.⁷⁾

以上の 간략한 出身系譜와 傳記를 통해 보더라도 그는 자기의 가문이 혁혁한 문벌의 文章家門이었다는 긍지를 지니고 있었을 뿐더러 그 자신의 文學의 才能에 대해서도 自負心이 대단하였다.

「내가 재주도 없이 우연히 많은 선비들의 선두를 차지했고 단아들 崔은 四位에, 다음 讓은 三位에, 다음 楹은 二位에 있어 비록 우뚝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科級도 높으나 아직 뛰어난게 장원으로 뽑히어 아버지와 더불어 科를 같이 하지는 되지 못했다. 高陽月師가 시를 지어 축하하기를, 「세 아들이 구술을 연이어 父風을 이어 받으니 仙桂 네 가지가 한 집안에 있다. 해를 이어 黃金榜을 차지하였으나 오히려 龍頭를 피한 것은 아버지께 사양한 때문이로다」 하였다. (僕以不才偶居多士之先 而長子崔第四人 次讓第三人 次楹第二 雖嶄然露頭角 科級巍 而未有能卓然處狀頭 得與父同科者 高陽月師作詩賀曰 三子聯珠繼父風 四枝仙桂一家中 連年雖占黃金榜 尙避龍頭讓老翁)⁸⁾

「本朝에서는 壯元으로 제상이 된 사람이 18인인데 이제 崔洪胤·琴克儀가 이어서 이미 黃扉(宰相位)에 이르렀고, 나와 侍郎 金君樞가 함께 洗苑에서 벼슬했으며 그 외에 淸華한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역시 15인이니 그 얼마나 많은가. 지금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6년째 되던 己巳年에 金公이 南州의 원으로 나갈 때 諸公들이 楸里에 모여 전송하니 세상에서 '龍頭會'라 하여 신선이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바라 보았다. (本朝以狀頭入相者 十有八人 今崔洪胤 琴克儀 相繼已到黃扉 而僕與金侍郎 君樞并遊洗苑 其餘得列於淸華亦十五人 何其盛也 今上即阡六年己巳 金公出守南州 諸公會于楸里以餞之 世謂之龍頭會 望之若

7) 破閑集下 世黃謹誌 pp. 52-55.

〈高麗史節要〉에는 “右諫議大夫 李仁老卒”로 되어 있어 世黃의 기록과 다르다.

8) 破閑集下 p. 38.

登仙)』⁹⁾

以上에서도 그의 三子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盛事와 자신은 더욱 우뚝이 壯元으로 급제한 것, 그리고 자신도 壯元郎으로서 뒤에 宰相이나 淸華한 직위에 오른 영예의 人物 가운데 한 사람임을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世人들로부터 尊崇받는 龍門第一의 文名을 차지했고 따라서 그 자신 自負도 대단했으나, 提衡이 되어 門生을 내지 못한 것을 가장 한스러워하였는데 末年에 左諫議大夫에 올라 試官의 命까지 받았으나 試席을 열어보기도 前에 죽고 말았다.

II. 그의 現實觀

李仁老가 當代 名儒였던 吳世才·林椿 등과 더불어 「竹高七賢」의 교체를 맺어 그 領首格으로 활동하면서, 仙道敎的 淸談과 詩酒로 相娛한 저 晋代의 「竹林七賢」을 効倣한 사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는 現世를 멸리하는 소극적·도피적 思想을 지녔던 인물로 보아오이 通例였다. 더구나 그는 어려서 父母를 여의고 僧 室—에 의해 양육되었고 成長해서는 武臣亂 와중의 文臣들에 대한 무단적 폭거를 피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적도 있었으며 卞生을 통하여 불교를 독신하였으므로 이같은 견해는 一見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웠다.

그러나 중이 되었다가, 文臣들에 대한 살육의 폭거가 멎은 후에 그는 다시 還俗하여 儒學의 修業에 정진하였고 과거에 응시하여 壯元郎이 되었으며 자신의 才名에 합당한 官職을 얻고자 애써왔던 것이다. 그가 31세 때 서장관으로 金나라를 다녀온 뒤 32세 때 桂陽郡 書記로 任命되어 宦路에 들어 선 이래 69세를 일기로 生涯를 마치기까지 그는 비록 顯官의 직위에 오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그 어지러운 文臣의 受難期에도 벼슬길을 박차고 떠나지는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역임한 관직은 左諫議大夫(正四品)였는데 고위직은 아니었으나 試官이 될 수도 있는 淸要한 직책이었다.

9) 破閑集下 p. 46.

오히려 그는 자기의 관직이 그의 材木에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겼으니 다음과 같은 記錄・作品에서는 그의 這間의 불만과 위축된 心思 및 自慰의 태도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도 역시 그 체를 본받아 당시 재상에게 써 올림 글에 이르기름,

일찌기 글을 배워 벼슬길 찾다보니 시 짓기만 부질없이 고생스러웠네. 늙은 외포는 봄버들처럼 어지럽고 쇠잔한 구레나룻 새벽 서리처럼 새로워라. 기울어진 숲에는 아침 불기 끊기어 주린 창자 밤이던 허기소리 잦네. 보은의 마음이야 간절하나 누가 이 마른 고기를 구해 주려나. (僕亦効其體獻時宰云 早學求遊官 詩成護苦辛 老懷存絮亂 衰鬢晚霜新 倒飯朝炊斷 飢腸夜吼頻 報恩心欸歎 誰是救枯鱗)」¹⁰⁾

「나는 시를 지은 것이 수천 편에 달하였으나 말이 어색한 것이 많고 자칫하던 무리로 꾸며 낸 흔적이 있다. 이것은 내가 첫째로 도감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며, 잠은 군수로 있는지 80일만에 곧 歸去來辭를 읊으며 官印을 풀어 놓고 떠나 버렸는데 나는 벼슬살이 30년에 郎署(하찮은 관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수업과 머리털이 허물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악착스럽게 올라가며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둘째로 내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작은 명망과 뛰어난 행적이 한세상 사람들의 쳐다보는 바가 되어 刺史인 王弘같이 위엄과 명망이 있는 이도 친히 오는 중간지점까지 마중을 나오게 했으며, 여산의 혜원같이 道가 높은 사람도 오히려 白蓮社에 불러 들었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에게 모두 버림을 받고 외롭게 홀로 있으면서 언제나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내가 세째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어려서부터 한가롭고 고요함을 좋아하였으며, 사람을 방문하는 데에 게으르고 북으로 난 들창 앞에 높이 누워 저절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을 좋아하였으니, 이것은 곧 도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僕呻吟至數千篇 語多滯遊動有痕類 一不及也. 潛在郡八十日 即賦歸去來 乃曰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鄉里小兒 解印便去 而僕從宦三十年 低徊郎署 鬢髮盡白 尙爲鯁鯁樊籠中物 二不及也. 潛高風逸迹 爲一世所仰戴 以刺史王弘之威名 親遶半道 廬山遠公之道韻 尙呼蓮社 而僕親交皆棄 子然獨處 常終日無與語者 三不及也 至若少好閑靜 懶於參尋 高臥此意 濟風自至此則可以拍陶潛之肩矣)」¹¹⁾

「곧은 길엔 원래 사람노릇 어렵도다.

나는 굽은 갈고리틀 펴고 굽은 책상을 베어버리고자 하나니

10) 破閑集上 p. 9.

11) 東文選 卷 65, 「臥陶軒記」¹⁾

바르고 곧기가 쇠화살 같아야하리
 황하를 푸른 유리같이 맑게 하여
 추호의 더러움도 안 묻게 하고 싶네.」

(直道由來作人難 我欲伸曲鉤斬曲几 要須平直如金矢 黃河正漲碧波流瀉 不着一點秋毫累)¹²⁾

「그러나 이 세상의 만물에 있어 그 아름다운 것을 독점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쫓아내는 것에게는 이를 제거하고, 날개 있으면 두 다리만 주었고, 이롭기는 꽃에는 열매가 없으며, 채색 구름은 흩어지기 쉽게 했으니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는 마찬가지로이다. 뛰어난 재예를 주면 빛나는 공명을 주지 않게 되는 이치가 이렇게 때문이다. 그러므로 孔孟荀楊으로부터 韓柳李杜에 이르는 분들은 비록 문장이나 德譽로서는 죽히 千古에 치솟을 수 있음에도 지위는 卿相에 오르지 못했으니 壯元으로 높이 뽑히고 台衡(宰相)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실로 古人이 말하는 ‘揚州鶴鷄’이라 하겠으니 어찌 많은 이가 가히 얻을 수 있겠는가. (然天地之於萬物也 使不得專其美 故角者去齒 翼則兩其足 名花無實 彩雲易散 至於人亦然 界之以奇才茂藝 則革功名而不與 理則然矣. 是以自孔孟荀楊以至韓柳李杜, 雖文章德譽足以聳動千古 而位不登於卿相矣 能以龍頭之高選 得躡台衡者 實古人所謂揚州鶴鷄也 豈可以多得哉)」¹³⁾

以上에서만 보아도 그는 才名을 자부하여 벼슬길에의 야망이 컸었고 顯職에 대한 갈망을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不如意하여 소망하는 관직이 아니어도 죽기전까지 계속 官職을 지켜 나갔던 積極的 現實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만족할 수 없는 지위였기에 그에 대하여 ‘枯鱗’(수레바퀴 지나간 자국에 핀 말라가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 意識을 더욱 강하게 느끼면서 그의 力量을 발휘할 수 있는 官職을 열망하여 당시 宰相에게 請願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망대로 성취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는 才藝와 功名을 兼全함이 역사상 드물다는 사실에 비추어 自慰하기도 하였고 세상의 情實에 울분틀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陶潛처럼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는 자신을 가엾게 여기기도 하였다. <高麗史>에서 李仁老에 대하여 「性偏

12) 東文選 卷 6, 「續行路難」中

13) 破閑集下 p. 46.

急 忤當世 不爲大用」¹⁴⁾이라고 평한 것은, 그 자신 大手로 자부하였으나 크게 쓰이지 못하여 枯鱗意識을 지녔던 것과 아울러서 그의 관직에 대한 理想과 現實의 相距가 컸던 것을 증명해 준다.

더구나 그는 武臣亂 以前의 權門貴族이었는데 亂 이후 舊貴族層이 무너져버린 當世에 新興士大夫들과 더불어 崔忠獻 父子의 門下에 出入하면서 벼슬길을 걷고 詩文의 명성으로 비호를 받아온 것은, 王의 存廢로부터 모든 사람의 生殺與奪을 恣行했던 그들 武臣執政下에서 살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형세였다고도 하겠으나, 李仁老 本心 역시 적극적 현실관을 가지고 官職에 나가서 儒者的 立身行道에 참여함으로써 家門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參與的인 삶의 태도를 견지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官職을 통해서 그의 삶의 理想과 포부를 充足시킬 수 없었던 실정에서 그는 또 다른 安息處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詩文의 世界였고 그것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고 存在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현실에서의 꿈의 궤적은 그로 하여금 詩의 生活 속에 특히 仙道教的 趣向을 길게 드러나게 하였다. 저 晋代의 遁世的 竹林七賢들과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을 흠모한 것이나 만년에는 도연명의 行蹟을 예찬하며 그와 비슷하게 되지 못함을 안타까와 하기도 하였음은 그 대표적 例가 되겠다. 「歸去來辭」에 和作한 「和歸去來辭」를 썼던 것, 또 「臥陶軒記」에서 「내 비록 도잠의 높은 뜻을 조금도 따르지 못하나 만일 그를 사모하여 그치지 아니하면 곧 또한 도잠이 될 것이다」고 한 것 등은 그의 仙趣를, 또 그 지향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例들이다.

또한 그는 當世에 대한 批判的인 인식에서 社會·歷史意識上的 復古性을 보였다. 武臣執政 以前 文風이 盛했던 好文의 主 睿宗朝를 다음과 같이 그리워함도 그 一例가 된다.

「예 좋은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고 儒雅함을 숭상하여 특히 청년자를 열어 날

14) 高麗史 卷 102, 列傳 15, 李仁老

마다 학사들과 더불어 墳典을 토론하고/궁중의 유생들에게 명하여 刻燭하고 七言六韻詩를 짓게 하니. (睿王天性好學尊尚儒雅 特開清宴閣 日與學士討論墳典/命禁署諸儒 刻燭賦七言六韻詩)¹⁵⁾

武臣들의 狎客이 된들 만족할 수 없는 文臣으로서의 本心은 이렇게 好文의 文治時代를 그리게 함이 당연하였다.

三. 李仁老의 詩學

李仁老는 <破閑集>에서 그의, 詩에 대한 여러 見解를 피력하였다. 그런데 <破閑集>의 記述方式 자체가 逸話的 斷片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各各의 言及들을 묶어 體系化하면 不足한대로나마 그의 詩學의 本質을 살펴볼 수 있겠다. 以下에서 몇 개의 項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하자.

첫째 詩란 무엇이며 어떤 方法으로 어떤 상황下에서 창작되며 또 어떠한 價値를 지니는 것인가?

① 「고금의 시인들이 사물에다 뜻을 부친 것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 두 분(神駿·林椿)의 작품이 처음부터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한 것이 구슬프고 한스러워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다. 그들이 재주는 있으나 쓰이지 못해서 세상 한 모퉁이에 떨어져 나그네로 떠돌아 다니던 모습이 또렷이 벗자 안에 나타났으니, 이른바 시는 마음에서 근원한다고 한 것이 믿을 만하다. (古今詩人托物寓意多類此 二公之作初不與之相期 吐詞懷惋右出一人之口 其有才不見用 流落天涯飄遊旅泊之狀 了了然見於數字間 則所謂詩源乎心者信哉)¹⁶⁾

② 「대개 문장은 타고난 성품으로 얻어지는 것이나 작록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다. (蓋文章得於天性 而爵祿人之所有也)¹⁷⁾

③ 「세상의 일 가운데 빈부나 귀천으로 높낮이를 정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문장 뿐이다. 대개 완성된 문장은 해와 달이 하늘을 곱게 하고, 구름과 연기가 허공에서 集散하는 것 같아서 눈이 있는 사람이면 보지 않을 수 없고 업제할

15) 破閑集上 p. 9.

16) 破閑集下 p. 42.

17) 破閑集下 p. 36.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갈포 옷 입은 비천한 선비로도 넉넉히 무지개처럼 찬란한 광채를 드리울 수 있으며 趙孟(春秋 때晉의 貴族)의 귀함이야 그 세도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집안을 넉넉하게 함에 부족함이 있으랴만 문장에 있어서는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문장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富로써도 그 가치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天下之事不以貴賤貧富爲之高下者 惟文章耳. 蓋文章之作 如日月之麗天也 雲烟聚散於大處也 有目者無不得視 不可以掩蔽 是以布葛之士 有足以垂光虹霓 而趙孟之貴 其勢豈不足以富國豐家 至於文章 則蔑稱焉. 由是言之 文章自有一定之價 當不爲之減)¹⁸⁾

④ 「부귀한 집 자식으로 타고난 천성이 좋아하지 않으면 문장을 잘하기 드문 법이다. (富貴家兒 非生得而性好 則罕有工文章者)」¹⁹⁾

以上에서 引用한 言及들을 통해서 「詩는 心에 근원하고 文學的 才氣로 托物寓意함으로써 獨自의 藝術的 價値를 지니는 것」이라는 李仁老의 詩觀을 볼 수 있다. 즉 그는 詩란 詩心을 비유적으로 그려낸 바의 產物이고, 따라서 인간 精神과 心緒의 表白이며 그 形象化라는 사실에서 貧富貴賤과 같은 物質的·세속적인 것으로는 그 가치를 加減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에 詩人 역시 自足的 存在의 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동시에 詩란 順境보다는 逆境中の 知性的 산물이고, 또 作詩에 있어 苦思보다도 偶興에 의한 自然成就가 중요함을 말하기도 하였다. 결국 그는 詩(文學)가 무엇인가에 대한 투철한 자각과 詩人으로서의 대단한 自負心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詩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① 「風雅가 없어지고부터 시인은 모두 두보를 추대하여 독보라고 하였으니, 어찌, 말 만드는 솜씨가 정치하고 군세에서 천지의 정화를 다 뽑아 내었기 때문일 따름이겠는가. 비록 한 끼 밥을 먹을 때에도 한 번도 입금을 잊은 적이 없었다. 군세계 충의의 절개가 속에 뿌리를 박고 밖으로 피어나와 글귀마다 覆契(중국 舜임금 때의 名臣인 적과 실)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듯하여 읽으면 나약한 사람도 뜻을 세움이 영롱하게 하기에 족했으니 그 소리나 질이 옥과 같음도 대개 이러한 까닭이다. (自雅缺風之 詩人皆推杜子美爲獨步 豈惟立

18) 破閑集下 p. 45.

19) 破閑集中 p. 17.

「語精硬 利盡天地精華而已 雖在一飯 未嘗忘君 毅然忠義之節 根於中而發於外 句句無非稷契口中流出 讀之足以使懦夫有立志玲瓏其聲其質玉乎蓋是也」²⁰⁾

② 「아, 초목은 정말 지각이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물을 대어서 가꾸어 주는 힘을 얻어 이렇게 되었거든 하물며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 遠近이나 疏戚을 가리지 말고 恩愛로 결속하고 職秩로써 키운다면 어찌 충성을 다하여 國家를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十二韻을 써 두니 採詩者가 임금께서 보시도록 하기를 바란다. (噫草樹固無知物也 猶資灌溉栽培之力 得致於斯 況人主之用人 毋論遠近疎戚 結之以恩愛 養之以祿秩 則安有不盡忠竭誠 以補國家哉 因書十二韻庶幾採詩者 用應乙覽)」²¹⁾

여기에서 李仁老는 詩가 본질적으로 忠義之節이 중심에 뿌리박혀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天地의 精華를 다 모은 立語로도 玉聲은 이를 수 있겠으나, 참다운 가치를 지니는 詩는 모름지기 忠諫의 뜻을 지닐 때 玉質까지 兼全한 것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뜻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기능까지 다할 수 있는 詩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 人主의 用人의 正道를 말한 忠諫을 담은 詩를 써서 採詩者를 통해 임금께 上達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세제, 詩는 어떻게 創作되어야 하는가? (作詩論)

① 「回文詩는 齊梁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文字 속의 장난일 따름이다. /대체로 보아 회문시란 순서대로 읽으면 어울려 쉬우나 거꾸로 읽어도 뻑뻑하거나 난삽한 터가 없고 語意가 다 妙해야 잘 됐다고 한다. (回文詩起齊梁蓋文字中戲耳 / 夫回文者 順讀則和易 而逆讀之亦無聲牙齧澁之態 語意俱妙 然後謂之工)」²²⁾

② 「시구를 다듬는 법은 오직 두보가 그 妙를 다했다. /또 사람의 재주란 그릇의 크나고 둥근 것과 같이 함께 견비할 수 없어서 천하에 기이한 경치나 이상한 구경거리가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지만, 실로 재주가 뜻을 따르지 못하니 마치 둔한 말의 발굽이 燕越천리길에 나선 것처럼 채찍질을 아무리 해도 멀리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감히 경거망동하게 손을 놀리지 않고 반드시 같고 닮은 공을 더한 후에야 무지개처럼 빛을 내려 천고에 빛낼 수 있었던 것이다. 句

20) 破閑集中 p. 18.

21) 破閑集下 p. 47.

22) 破閑集上 pp. 8-9.

季마다 단련하고 朝夕으로 음풍하며 수염을 비벼가면 고심하여 써도 一字를 재대로 안배하기가 어렵다/蘇黃에 이르러서는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 더욱 정교하고, 배어난 기상이 황홀하여 시구를 다듬는 절묘함이 두보와 더불어 대등할 만하다. (琢句之法 唯少陵獨盡其妙/且人之才如醫血方圓 不可以該備而天下奇觀異賞 可以悅心目者甚夥. 苟能才不逮意 則譬如羈蹄臨燕越千里之途 鞭策雖動 不可以致遠 是以古之人 雖有逸材 不敢妄下手 必加鍊琢之工 然後足以垂光虹蜺輝映千古 至若句鍛季鍊朝吟夜飄 然巖巖安於一字/及至蘇黃 則使事益精 逸氣橫出 琢句之妙 可以與少陵并駕)]²³⁾

③ 「(李之仄의 詩) 對偶가 정치하고 뛰어나 정말 기교 부린 흔적이 없다. (對偶精切 固無斧鑿之痕)]²⁴⁾

④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고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點鬼簿라 하고 이상은은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 험박하다하여 西崑體라 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문장의 한 병폐이다. 근래에 와서 소동파와 황산곡이 산처럼 우뚝 솟아 비록 그 법을 따르고 숭상하면서도 造語가 더욱 잘 다듬어져 조금도 쥐고 다듬은 기교의 흔적이 없으니 정말 靑出於藍이라 할 만하다. (詩家作詩多使事 謂之點鬼簿 李商隱用險僻號西崑體 此皆文章一病 近者蘇黃崛起 雖追尙其法 而造語益工了無斧鑿之痕 可謂靑出於藍矣)]²⁵⁾

⑤ 「옛 적에 황산곡이 시를 논하여, '古人的 뜻을 바꾸지 않고 말을 바꿔 표현하는 것을 換骨이라 하고, 고인의 뜻을 법받아 형용하는 것을 奪胎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남의 詩文을 모방만 하는 것과의 차이가 천지차이라 할지라도, 표절해놓고 공교하다고 이름을 먼치 못하겠으니 어찌 고인이 이르지 못한 경지에서 이른바 新意를 나타내는 妙라 하겠는가. (昔山谷論詩 以謂不易古人之意 而造其語 謂之換骨 規模古人之意 而形容之 謂之奪胎 此雖與未活剝生吞者 相去如天淵 然未免剝掠潛窃以爲之工 豈所謂出新意於古人所不到者之爲妙哉)]²⁶⁾

⑥ 「이 한 시구를 들으니 그 山光水色이 눈앞에 있는듯 역력하다. 이것이 바로 옛날 사람들이 말한 바 '시 가운데의 그림'이다. (聞此一句 其山光水色歷歷如在眼前 此古人所謂詩中畫也)]²⁷⁾

⑦ 「시의 잘 짓고 못짓는 것은 더디 짓고 빨리 짓거나 먼저 짓고 나중에 짓는 데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唱하는 이는 먼저 하고 여기에 화답하는 야

23) 破閑集上 pp. 11-12.

24) 破閑集中 p. 19.

25) 破閑集下 p. 36.

26) 破閑集下 p. 43.

27) 破閑集上 pp. 13-14.

는 항상 나중에 하므로唱하는 이는 여유있고 한가해서 재촉받는 게 없으나 화답하는 사람은 억지로 끌려 힘겨운 데에 빠지게 됨을 면치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남의韻을 이어받아 화답하는 것은 비록 이름있는 재주라 해도 가끔 못해 내는 경우가 있으니, 사리가 정말 그럴 만하다. (詩之巧拙 不在於遲速先後 然唱者在前 和之者常在於後 唱者優遊閑暇而無所迫 和之者未免牽強墮險 是以繼人之韻 雖名才往往有所不及 理固然矣)²⁸⁾

⑧ 「술을 두어 잔 나누고 나와서 우연히 말 위에서 長句를 얻었다. (酒數酌而出 偶於馬上得長句)」²⁹⁾

⑨ 「康日用선생은 백로를 두고 시를 지으려고 매일 비를 무릅쓰고 天壽寺 남쪽 개울에 이르러 살펴보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날아서 푸른 산허리를 끊었도다」 이를 얻고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옛 사람이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렀으니 뒤에 마땅히 奇才가 나와 이 시를 이으리라’고 하였다 한다. 나는 이 시구를 정말 前輩보다 탁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개 교생스럽게 지어 이루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康先生日用 欲賦鸞鷲 每冒雨至天壽寺南溪上觀之 忽得一句云 飛剗碧山腰 乃謂人曰 今日始得到古人所不到處 後當有奇才能續之 僕以爲此句誠未能卓越前輩而云兩者蓋由苦吟得就耳)」³⁰⁾

⑩ 「두 편은 다 작자의 이름이 없으나 그 語法이 唐宋人의 것과 차이가 없다. (此二篇 俱無作者之名 然其語法與唐宋人無異)」³¹⁾

⑪ 「(戒齋의 詩) 무릇 득도한 사람의 말씨는 여유있고 맑으며 이치가 심원하여 비록 禪月(前蜀 고승 貫休)의 高逸함이나 參寥(宋 고승)의 清婉함이라도 어찌 이보다 낫겠는가. 이것이 바로 옛 사람들이 이른바 ‘바람이 불면 물에는 자연히 무늬가 생긴다’ 함과 같다고 하겠다. (夫得道者之辭優遊閑淡而理致深遠 雖禪月之高逸 參寥之清婉 豈是過哉 此古人所謂如風吹水自然成文)」³²⁾

⑫ 「(鄭知常의 詩) 그 시어의 자유분방함과 속티를 벗어남이 다 이와 같았다. (其語飄逸出塵皆類此)」³³⁾

⑬ 「(崔鉤의 詩) 사어의 유창하고 고음이 모두 이러한 類였다. (詞語流麗皆此類)」³⁴⁾

28) 破閑集上 p. 10.

29) 破閑集上 p. 9.

30) 破閑集上 p. 12.

31) 破閑集中 p. 25.

32) 破閑集中 p. 24.

33) 破閑集下 p. 49.

34) 破閑集下 p. 50.

⑭「(林椿)의 故事를 사용하는 솜씨는 더욱 정교하여 古人이 갈한 바 ‘금실로써 수를 놓았다’고 할 만한 것으로 조금도 흔적이 없다. (其用事益精 此古人所謂鍍金結繡 而無痕迹)」³⁵⁾

⑮「내가 팔구 세 때 한 老儒를 따라 글을 배웠다. 일찌기 古人의 警句를 가르쳐 주었는데 「꽃은 난간 앞에서 웃어도 소리는 돌리지 않고, 새는 수풀 속에서 울어도 눈물 보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었다. 내가 말하기를, 끝내 「버들은 문밖에서 쟁그리나 그 뜻 알기 어려워라」 한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말이 매우 적절하고 語意가 모두 교묘합니다 라고 했더니 老儒가 깜짝 놀랐다. (僕八九歲 隨一老儒習讀書 嘗教讀古人警句云 花笑檻前聲未聽 鳥啼林下淚難看 僕曰終不若柳擘門外意難知 詞甚的語意俱妙 老儒愕然)」³⁶⁾

以上 多數의 引例를 통해서 確實하게 드러나는 바로는, 李仁老가 從來 지적되어 온 바의 ‘用事論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作詩上의 正道는 무엇인가 하는 詩創作論을 펼친 詩人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詩는 모름지기 語意가 俱妙의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누차 강조하였다. 그런데 語妙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鍊字琢句之工을 들여야만 하고, 단지 一字를 안배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체득하여야 하며, 對偶의 중요성, 묘사가 뛰어난 회화적 詩世界 즉 詩中畫의 추구에도 익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用事를 論함에 있어서는 用事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로되 點鬼簿나 험박한 용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換骨奪胎가 자칫 剽竊에 이르는 것을 극력 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語妙의 경지는 無斧鑿之痕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 自然生成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만 한다고 言及하였다.

한편 意妙는 古人이 이르지 못한 바의 新意에서 비로소 可能的 것이라고 하였고, 구애됨이 없는 자유분방함이 苦思보다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의 語妙도 개념이 단지 綴辭의 次元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意境 역시 語妙를 통해서 구체화 됨을 말한 것이었다. 詩(文學)가 言語藝術이라는 투철한 인식에서 그는 언어문제를 우선적으로

35) 破閑集下 p. 38.

36) 破閑集下 p. 48.

중시한 것이었고 用事만을 치중해서 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用事論者로만 보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몰락한 귀족층의 의식구조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건강부회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무신란 이전의 문인과 무신란 이후의 문인은 동질적인 문인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는 데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해야만 한다./문인이라는 범칭은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글을 하는가는 역사적인 시기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무신란이 결정적인 몰락을 강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친 것은 구시대의 문인에 대해서이고, 낡은 문학에 대해서이다. 신라 이래의 오랜 인습을 지켜오며 문벌에 의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외세에 대항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민족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안일을 도모하는데 힘을 기울인 문신들의 특권의식, 사대의식, 형식주의, 보수성과 관련된 문학이 파괴된 것이다.」³⁷⁾

라고 하여, 사상적 근거와 역사적 성격을 論하고서, 바로 이규보와 이인로를 그에 적용시키기를,

「이인로는 문학 창작에서 用事를 중요시했고, 이규보는 문학 창작에서 新意를 중요시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개성적인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인로와 이규보의 차이는 이인로가 무신란으로 몰락한 구귀족에 속하는 인물이고, 이규보가 무신란과 함께 대두하기 시작한 새로운 세력에 속한다는 데 근거를 둔 것이다./

이인로의 문학이 몰락한 자의 자위책이었다면, 이규보의 문학은 진출을 위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⁸⁾

라고 하여 이인로와 이규보의 文學觀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출신성분의 차이에서 피할 수 없이 결과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兩者의 文學觀은 個人差를 보이면서도 크게는 同時代 文人으로서의 同質性을 오히려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³⁹⁾

37) 趙東一, 前掲書 pp. 68-69.

38) 上掲書 pp. 70-71.

39) 拙稿, 「李奎報의 文學觀에 대하여」(서울女大 논문집 8호, 1979) p. 78.

그리고 李仁老는 語意俱妙를 그의 詩創作論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특히 形象化를 증시하여 語妙에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當代에 語妙의 방편으로 用事를 愛用하고 多用하는 실정에 유의하여 그것의 병폐와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밝혔고, 기교를 다 부린 흔적(斧鑿之痕)이 없도록 경계함에 오히려 주력하였던 것이다. .

四. 結 語

以上에서 살펴온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다.

첫째, 그의 現實認識의 態度에서는 新興士大夫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積極的 현실관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그의 才名에 상응하는 직위에 오르지 못하여 '枯鱗'意識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둘째, 그의 단편적 진술이나 作品을 통하여 보여주는 바 文學思想의 골자는, 詩의 本質과 그 독자적 가치에 대한 言及, 그리고 作詩論으로서 語意俱妙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고, 語妙를 위해서는 無斧鑿之痕의 自然生成의 경지를, 意妙를 위해서는 역시 新意를 重視하였다.

셋째, 新意·用事論에 의거하면서 그것이 출신성분의 의식구조의 相異에서 결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無理이다.

李奎報도 다만 新意論者로 파악하기 보다 語意 모두의 個性을 강조한 詩創作論을 내세운 詩人으로 봄이 온당하겠다.